문제에 本來부터 關心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硏究하시는 여러분 가운데서 특히 여기 나오신 선생님들은 여러 모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심포지움은 여러가지 뜻하지 않은 事情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變更 되었읍니다. 主題는 아무리 좋다고 하드라도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프로그람에 있는 것과도 조금 달라졌읍니다. 첫째로 司會에 李相佰이라고 되어 있읍니다만 李相佰先生님이 못 나오시고 하여 제가 司會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洪以燮氏가 못 나오셔서, 우선 柳洪烈 先生님께서 '近世 天主敎徒의 西洋觀'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 金龍德 先生께서 '東學에서 본 西學'을 말씀해 주시겠읍니다. 거기에 이어 李光麟 先生, 韓沽劤 先生의 討論이 있을 것입니다. 勿論 討論은 두 분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두분께서 仔細한 討論과 評과 其他 疑問 質問等 여러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분들에게만 限定되는 것이 아니고, 앉아 계시는 누구든지 質疑와 討論에 參加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오늘 時間 本來의 豫定은 한 분에 30分씩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말씀드린 事情에 依하여 조금 더 지나도 相關없겠읍니다.

元來 생각은 한네 분가량 모실 생각을 했었고 또 그렇게 豫定되었었는데 부득이 事情이 생겨서 미안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이 두 분께서 오랜 硏究하신 만큼, 거의 아마 못 나오신 분에 對한 補充的인 內容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近世 天主敎徒의 西洋觀

柳 洪 烈

題目이 '近世 天主敎徒가 본 西洋觀'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프린트에는 좀 題目을 바꿔서 '迫害期에 있어서의 天主敎徒가 본 西洋觀' 이렇게 붙였읍니다. 勿論 天主敎徒가 나타나게 된 것은 1783年에 李承薰이가 北京에 가서 Gouvea 神父에게 洗禮를 받고 돌아와서 南人學者 丁茶山以下 同僚들에게 洗禮를 주고, 1785年에 敎會가 創設된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一部 信仰을 가진 사람들은 있었읍니다만, 本格的으로 敎會를 세운 것은 1785年이고 이후 1886年에 佛蘭西와 條約을 맺어 1887年 그 條約이 批准되었는데, 그 中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으나, 佛蘭西人들이 우리나라와 通商 修好함에 있어 西洋의 法學이나 기타 學理 學術을 가르칠 수 있다는 條項이 들어 있었읍니다. 美國과의 條約이 1882年에 맺어지고 이어서 英國 獨逸 러시아 이태리 등과 맺어지고 마지막으로 佛蘭西와 1886年에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外國과의 條約이 佛蘭西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끌었느냐 하면, 佛蘭西와의 條約文에는 우리나라에 宣敎團을 派遣하기로 되어 있어, 앞서 美國이나 日本과 맺은 條約과는 性質上으로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佛蘭西와 條約을 맺는 데 있어 우리 側이 특히 主張한 것은 宗敎의 自由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읍니다. 우리나라에 1880年에 와서 1884년에 佛蘭西에 돌아간 Ridel 神父가 佛政府側과 協議하여 우리나라와의 條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宗敎의 自由를 規定짓는 條項만은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佛蘭西人이 우리나라에 와서 居住地를 갖고, 우리나라 땅을 빌려 집을 지을 수가 있음은 勿論 朝鮮人들에게 西洋의 學術을 가르칠 수가 있다하는 敎誨의 두 글자를 넣었읍니다. 우리

측에서는 이 教誨라는 글자를 理解하지 못하고 그냥 調印한 것입니다. 佛人들이 朝鮮人을 가르칠 수 있다는 教誨라는 두 글자로 말미암아 佛蘭西는 信教, 宗教의 自由를 얻게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規定은 이후 朝鮮과 맺는 모든 나라에도 適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實際 이런 協定으로 집을 세우고, 明洞 天主教堂을 지으려고 터를 딱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抗議를 했읍니다. 傳教의 自由를 주지 않았는데 왜 자꾸 집을 짓느냐? 했더니 佛蘭西側에서는 條約文에 教誨라 하는 것은 무어냐?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教理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뚜렷이 條約文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제야 不察을 알아 차리고 信教의 自由를 許諾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天主教는 滿 100年동안의 迫害期를 가지게된 것입니다.

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100年 동안에 天主教徒들이 西洋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는 면을 말씀드리겠는데, 그러자면 自然이 西洋의 學術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始作한 것, 또 대개가 南人들이 中心이 되어서 西學을 研究하다가 그것이 信仰運動으로 展開되어 나갔기 때문에 이 迫害時期 以前의 時期를 먼저 言及해야 겠읍니다.

西洋書籍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時期는 倭亂이 끝난 1600年 以後부터 西洋의 學術이 들어오고 그런 것을 通해서 西洋에 對한 認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겠읍니다.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印刷物에는 첫째 書籍을 通해본 西洋觀인데, 우리나라에 西洋의 書籍이 처음 들어 왔다고 하는 記錄은 여기 적힌 바와같이 芝峰 李睟光이 北京에 往來하였는데(1590年, 1597年, 1610年) 西洋에 對한 것을 芝峰類說이란 册에다 紹介했읍니다. 이 책이 1614年에 開版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世界觀 人生觀等에 變化를 가져오게끔 하였읍니다. 1610년 北京에 갔을 때는 記錄은 없읍니다만 아마 거기 있는 天主堂을 구경했을 것이야요. 李匡正이란 사람이 燕行使로 北京에 가서 Matteo Ricci가 만든 坤輿萬國全圖를 가져왔는데, 여기에는 朝鮮도 들어 있고, 地球가 둥글다든지, 各 나라의 이름, 그 距離, 歐羅巴, 아메리카도 들어 있는데 이것이 芝峰類說에 나옵니다. 이로서 비로서 우리 겨레가 西洋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勿論 이에 앞서 1593年 年末에 日本에 와 있던 耶蘇會 神父 Cespedes가 日本軍隊가 侵入할 때 從軍神父로 지금 仁川에 와서 한 一年동안 머문 일이 있었으나 우리나라 사람과의 直接的인 接觸은 없었고 다만 어린애들을 많이 救濟한 일이 있읍니다. 勿論 部分的으로 壬辰倭亂때 西洋이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야요, 또 壬辰倭亂이 일어나기 3年前 1589년에 日本에서 우리나라에 鳥銃이란 무기를 膳物로 몇 자루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政府는 使用하지도 않고 두웠다가 後에 倭亂이 일어나니까 鳥

銃이 무서운 것인 줄 알고 倭兵을 神兵이라 하여 무서워한 記錄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降服한 軍人들을 通하여 鳥銃이 西洋에서 만들어 졌다는 것을 알고, 西洋이란 나라가 있다는 것도 一部軍人들 사이에는 알려졌을 것입니다.

또 日本에 잡혀갔던 우리나라의 많은 男女 捕虜 약 5萬名中 우리나라에 返還된 사람이 7千名입니다. 日本 나가사기 地方에 가서 奴隷가 되고 다시 Vietnam과 같은 南洋에 팔려가는 捕虜中에서, 天主敎 敎理로서 人身賣買는 不可하다 하여 그 中 2千名을 救濟하여 洗禮를 준 일이 있읍니다. 大部分은 그 後 迫害로 죽었읍니다만 돌아 온 7千名 가운데, 或은 그들의 著書에 依하여 日本에 天主敎라는 것이 盛行하고 있다는 것을 안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實際 가 본 사람도 있었을 거야요.

그러나 西洋에 對한 認識이 本格的으로 增大된 것은 倭亂이 가라 앉은 後에 北京을 通해서 들어오는 西洋사람들의 著書에 依하여서 입니다. 그 中 가장 有名한 것은 Matteo Ricci의 天主實義입니다. 1534年 巴里에서 組織된 Jesui Order란 것이 Counter Reformation 運動으로 일어나 新開拓地의 傳敎事業을 맡았읍니다. 그 構成員들은 거개가 大學敎授들로 當代의 一流學者들이었는데 그 中에 한 構成員이 마테오 릿치로 1578年 고아를 거처 82년에 마카오에 들어 왔던 것입니다. 83년 廣東地方에 와서 坤輿萬國全圖를 만들어서 南京에 들어 온 것이 1595年, 北京에 1598년에 들렸는데 그때 神宗에게 이 地圖를 올린 것입니다. 明皇帝 神宗은 이것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自己네 中國이 가장 큰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西洋에도 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야요, 마테오 릿치는 다음해에 倭亂과의 嫌疑를 받아 監禁生活을 天津地方에서 一年동안 하다가 陋名이 풀려 1601년에 北京 南門안에 神宗으로 부터 땅을 받습니다. 西洋의 學者를 優待하여 利用하려는 神宗의 意圖로 "南堂"이란 天主堂이 1601년에 세워 졌읍니다. 그와 同時에 나온 册들이 근 20種 있읍니다. 그 중에 地圖로서 坤輿萬國全圖가 있고 敎理 方面으로 天主實義가 있고 敎論이라든지 數學 科學 方面의 幾何學 等等 많은 種類가 있읍니다. 이 册들의 一部가 李匡正에 依해 1703年 韓國에 紹介된 것이야요, 芝峰類說에 나온 것을 보면 "歐羅巴國在西域最絕遠去中國八萬里自古不通中朝至 大明始再入貢地圖乃其國使臣馮寶寶所爲而末端作序文記之其文字雅馴與我國之文不異始信書同文爲可貴也按其國人利瑪竇李應誠者亦俱山海……歐羅巴國地界南至地中海北至水海東至大乃河 西至大西洋地中海者乃是天地之中故各云" 이것은 坤輿萬國全圖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뽑아 실은 것이야요, 다음 佛浪機國에 관한 것인데 지금 佛蘭西인 모양, 紹介된 內容을 보면 "佛浪機國在暹羅西南海中乃西洋大國也其火器號 佛浪機 今兵家用之又西洋布極輕細如蟬翼焉"이라하고, 또 北極地方

에 關한 知識으로 永結利國이란 것이 있는데 "永結利國在極西外洋晝則極長夜纔二更旋即天明其俗惟喫麥屑衣皮喪以舟爲家四重造船以鐵片周裹內外船上建數十檣竹船尾設生風之機碇索用鐵鎖數百湊合以成故雖遇風濤不敗戰用大砲出沒行駛海中諸國莫敢相抗頃年月日本漂到興陽之境其船極高大如層樓……" 이런 程度의 知識입니다. 다음에 歐羅巴國 說明이 다시 나오는데 "歐羅巴國亦名大西國有利瑪竇者泛海八年越八萬里風濤居東粵十餘年所著天主實義二卷首論天主始制天地主宰安養之道次論人魂不滅大異禽獸次辨輪廻六道之謬天堂地獄善惡之報末論人性本善而敬奉天主之意其俗謂君曰教化皇不婚娶故無襲嗣擇賢而立之"

이것이 芝峰類說에 紹介된 西洋의 內容입니다. 이 册이 開版됨에 따라 南人學者들과 當時의 一部 뜻있는 學者들에게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芝峰이 1628年에 죽습니다마는 1610年 北京에 갔을 때는 南堂을 구경했을 것이고, 許筠이 北京에 가서 12端을 얻어 最初로 信敎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밖에 많은 사람들이 北京에 와 傳敎를 하는데, 그中 가장 有名한 것이 아담·샬과 昭顯世子입니다. 昭顯世子는 1637年 丙子胡亂時 人質로 奉天에 끌려가 근 6年 동안 監禁生活을 하다가 北京이 陷落됨에 따라 北京에 들어갔읍니다. 그 1644年에 예수會에 있는 신부 Adam Schall을 만나 같이 捕虜로 한 두 달 동안 서로 가까이 지냈읍니다. 아담·샬 神父는 昭顯世子를 通하여 많은 册을 우리나라에 보내려고 하여 昭顯世子가 다음 해 봄 人質이 풀려 1645年 우리나라에 들어 올 때, 많은 天主敎書籍과 天主敎 信徒를 거닐고 왔어요, 不幸이도 昭顯世子는 그 후 두 달후에 病이 들어 죽습니다. 그리하여 昭顯世子를 通해 들어온 册들을 불살아 버리고 또 明에서 들어 왔던 宦官들도 놀려 보낸 일이 있읍니다.

以後 北京에 간 每 사람마다 西洋册들을 가져오게 되어 芝峰類說에 紹介된 以上의 知識들이 紹介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書籍을 通해서 西洋의 認識이 增大되었음은 勿論이지만 西洋人들과의 直接的인 接觸에 依해서도 西洋觀이 새롭게 形成되었던 것이예요. 北京에는 1601年에 南堂이 세워지고 그후 1723년까지 가는 사이에 四大 天主堂이 세워집니다. 거기서 西洋에 對한 實際知識을 얻고 또 아담·샬 같은 사람은 朝鮮에 傳敎할 計劃으로 昭顯世子와 기타 우리나라 사람들을 닷곤 하였읍니다. 그 때 北京가는 사신들은 19景을 구경하게 되는데 그 19景中에 四 天主堂이 있었으니, 이것은 熱河日記에 적혀 있어요. 北京에 가서 두달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北京의 天主堂을 구경하고, 西洋 神父들로 부터 歡待를 받습니다. 이에 對한 記錄의 하나는 李頤命의 것인데, 그는 肅宗 때 使臣으로 後에 殺害를 當합니다마는 1720年 北京에 들어가서 獨逸神父 Ignatias Koegler와 폴투칼 神父 Joseph Saurez 이 두 神父를 만나서 歡待를 받은 記錄이 疎齋集 19卷에 나타나 있읍니다. 獨逸 神父와 폴투

칼 神父에게 感謝의 便紙를 보낸 內容이 李頤命의 文集에 나와요. 便紙의 內容을 말씀드리면 "仙堂에 찾아가니 나를 歡迎함이 옛 벗과 같더라"하고 大概 돌아 올 때는 物件을 보내 주어서 가져 왔는데 "東西로 적어도 十萬里의 사람이 이렇듯 奇緣을 갖게 된 것은 즐거운 일이다. 어제 가 본바 殿閣이 높고 깊고 그윽하고 崇深한바 金壁의 輝煌함과 또 이상한 그림들을 높이 건 것과 또 香燭의 훌륭함, 이런 것이 모두 佛敎의 절과 같다고 느꼈다"는 것이예요. 西洋式의 집과 聖堂의 構造를 여러가지로 說明하고 있읍니다.

西洋에 對한 知識들이 이렇게 하여 增大되어 갔고, 燕行使들은 北京에 가면 西洋 神父들에게서 많은 見聞을 넓히고, 西洋 사람들이 어떻게 생긴 것도 알고 그리고 그로부터 여러가지 物件을 가지고 옵니다. 포도주의 製造法이라든지 또는 天文學에 關한 나침판이라든지 하는 物件을 얻어와 西洋이 어떻다는 것을 實際 西洋人과 接觸하고 物件을 通하여 西洋에 對한 知識이 점차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읍니다.

勿論 아담·샬 이전에 和蘭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이 있어요. 1627年 Weltevree 以下 3人이 南海岸에 漂着하였는데 그中 Weltevree는 우리나라에서 砲術을 가르쳤으며, 家庭을 이루어 一男一女를 두었던 것입니다. 근 30年 동안 우리나라에 살다가 우리나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 Weltevree를 通해서도 亦是 西洋이 어떠한 나라라는 것 그 중 特히 네델란드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 이어 1653年에는 Hamel 一行 36人이 濟州道에 漂着하여 서울로 護送되어 왔는데 途中 1人은 死亡하고 35名이 서울에 와서 亦是 砲術를 가르쳤읍니다. 그 때는 鳳林大君이 孝宗으로 登極하여 北伐計劃도 세우고 하던 때였는데, 이들을 通해서 西洋에 對한 知識을 배웠을 것입니다. 西洋 砲術이 어떻다든지, 西洋人의 생김생김을 알게 되었고, 1657年에는 淸나라 使臣을 만나서 自己들이 억울하게 抑留生活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풀어 달라고 애걸하다가 발각되어서 全羅道에 귀양을 갔읍니다. 거기서 甕器를 굽다가 Hamel이 8人을 데리고 몰래 脫出해서 1666年에 자기 나라로 돌아 간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하멜漂流記를 썼는데 이 册에 依해서 우리나라가 西洋에 비로서 紹介됩니다만 이 8명 以外에는 全部 韓國에서 家庭을 이루어 살다가 죽었읍니다. 이들을 通해서 어느 程度 西洋에 대한 知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西洋 知識이 本格的으로 吸收된 것은 敎會 創設 이후의 일입니다만 特히 佛蘭西 神父가 183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便紙를 로마 敎皇에게 보내서 敎皇에게까지 敎會를 創設해서 神父를 보내 달라는 運動을 展開한 것이예요. 이러한 漢文 便紙가 北京敎會를 거쳐 北京에서 라틴어로 飜譯되어 로마 敎皇에

게 傳達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831年에 朝鮮教區가 하나의 獨立된 教區로 成立되고 이에 따라 西洋人들이 實際로 들어 옵니다. 1836年 Maubant이 제일 먼저 방갓을 쓰고 喪祭옷을 입고 들어 왔읍니다. 다음 해에는 Chastun, 또 1838年에는 Imbert 主教가 들어 와서 秘密히 서울까지 들어와, 本格的인 傳教活動을 開始했읍니다. 勿論 방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으므로 잘 보지는 못했지만 天主教徒들은 實際 神父들을 通해서 佛蘭西의 知識을 많이 가졌던 것이예요. 그 때 有名한 丁茶山의 조카 丁夏祥과 李承薰의 아들 李身逵 等이 自願해서 神學을 공부했읍니다.

3年後 1839年에 所謂 己亥迫害가 일어났는데 그 3年동안 丁夏祥이란 사람은 자기가 神父가 되겠다고 해서 그때 벌써 나이가 42歲인데도 不拘하고 장가도 안 가고 獨身을 지키면서 神學工夫를 했읍니다. 달레의 教會史에 보면 이 사람들이 神學을 工夫하기 爲하여 實際로 Latin語도 배우고 歐羅巴語도 배워 얼마 안가면 正式 神父로 任命될 것인데 迫害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적어도 丁夏祥 程度라면 相當히 西洋에 對한 깊은 認識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有名한 金大建이 1836年 佛蘭西 神父가 들어오자 마카오에 神學生으로 派遣된 것입니다. 그 때 中國의 劉方濟 神父가 1833年에 서울에 들어 왔다가 佛蘭西 神父들이 들어오는 것을 排斥했읍니다. 佛神父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내보낼 때에 金大建, 崔良業, 崔·방지거의 15歲된 세 少年을 北京을 거쳐 남쪽 마카오에 보냈읍니다. 마카오에는 極東傳教를 爲한 神學校가 있었읍니다. 거기서 살면서 10年동안 工夫를 한 것입니다.

金大建의 活動은 10年동안 거기서 工夫를 하고 朝鮮에 있어서의 天主教 彈壓을 問責하기 爲해서 佛蘭西 함대를 타고 自己가 通譯이 되어서 古群山列島, 全羅道 海岸에 나타난 일이 있읍니다. 1842年의 일입니다. 필리핀을 거쳐 中國으로 해서 왜 天主教徒를 迫害하느냐 하는 問責을 하러 1845年에야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金大建 程度로 보면 完全히 西洋人과 同一한 生活을 하다 왔으니 西洋에 對한 見識, 西洋觀이란 것이 넓고 깊게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金大建이 1846年에 잡혀 죽습니다. 留學갔던 나머지 2人中 한 사람은 風土가 나빠서 죽고, 그리고 1849年 崔良業이 神父가 되어서 들어 옵니다. 이 崔良業은 13년만에 우리나라에 돌아 온 셈인데 이 崔良業은 끝까지 마카오에서 工夫하였으니 亦是 相當히 西洋의 知識이 깊었고, 우리나라에서 傳教事業은 勿論 實際 라틴말을 번역하고 教會史 材料를 모아서 Latin말, 불란서말로 번역하는 많은 일을 하다가 1861年에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迫害時期에 있어서 實際 見聞을 넓히기 爲해서 카톨릭教 神學生들이 마카오에서, 싱가폴에서, 말레이 半島 서쪽에 페낭이란 섬이 있는데, 이 페낭이란 섬에 1856年 부터 留學을 갑니다. 迫害 途中 세 명의 神學生을

뽑아 보냅니다. 그 세 사람은 成功을 하지 못했어요. 페낭에는 極東傳敎를 爲한 神學校가 있었읍니다. 페낭에 神學生 派遣이 本格的으로 많아 지는 것은 美國하고 條約을 맺은 1882年 부터 시작됩니다. 21名이 페낭 神學校에 派遣된 일이 있는데 熱帶의 氣候때문에 더러는 죽고 7名이 神父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와같이 마카오나 페낭에 갔던 사람들은 西洋에 關한 옳바른 認識을 가지고 돌아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또 金大建이 1845年 우리나라에 들어 왔다가 11名의 信者들을 데리고 上海로 들어 간 일이 있어요. 그 때 北京에 갔던 11名의 우리 同胞들은 西洋사람들의 生活樣式과 建築을 보았을 것이예요. 그리하여 많은 見聞을 넓혔읍니다. 또 大院君 迫害時期에 有名한 Ridel神父가 忠淸道에서 脫出하여 가는데, 11名의 朝鮮人과 함께 芝罘에 가서 佛人이 經營하는 큰 집에 머물렀읍니다. 그때 비로소 Ridel神父가 거느리고 있던 崔善一(최요한)이란 神父를 비롯해서 天津·芝罘의 西洋人들의 집에 가서 實際로 머물르면서, 그 집의 家具를 보고 놀랐읍니다. 특히 유리 거울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을 내다 본다고 하여 놀란 記事가 나와요. 1866年의 일입니다만 西洋人들에 對한 認識이 높아져서 門戶開放을 하자는 主張이 일어났고, 다음에 西洋의 나라들이 強하니 西洋의 힘을 빌어 門戶開放을 하자, 그리고 南侵하는 러시아의 勢力을 막자는 運動이 展開된 것입니다.

于先 神父 派遣運動으로 展開된 것은, 1795年에 中國神父 周文謨가 서울에 들어 옵니다. 以後 6年間 숨어서 傳敎를 하였는데, 當時 東洋傳敎를 効果的으로 하기 爲하여 西勢東漸時代에 極東貿易에 있어 覇權을 잡고 있던 폴투칼이 힘쓰고 있었어요. 北京敎會 主敎 Gouvea도 폴투칼人이고 해서 폴투칼이 西洋에서 가장 強하다는 印象을 가지고 있었는데, 1796年 우리나라가 天主敎를 迫害하고 信仰의 自由를 抑壓하니까 그 한 方法으로 朝鮮 天主敎 信者가 周文謨 神父를 通해 폴투칼 女王 Mary I에게 便紙를 보냈는데, 말하자면 Mary I로 하여금 兵力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와 修好條約을 맺고 그와 아울러 數學과 醫學에 정통한 神父 몇 사람을 보내 우리나라를 開化시켜 달라고 하는 書信을 보낸 일이 있었으나 實現되지 못했읍니다. 1796년에 一種의 門戶開放이랄까 하는 信仰의 自由를 얻고자 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 1801年에 辛酉迫害가 일어나자 그 때 黃嗣永이란 信者가 秘密裡에 비단에다 一萬餘字의 便紙를 써서 이 便紙를 所謂 北京에 보내 폴투칼의 國力을 빌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부패하기 짝이 없는 政治를 하고 國力이 衰盡하였으니 폴투칼의 強力한 軍隊를 이끌고 와 우리나라를 威脅하고 信敎의 自由를 주게하라는 內容의 便紙를 쓴 일이 있읍니다. 黃嗣永이가 잡혀서 帛書가 北京에 傳達되지는 못하였읍니다만 그 帛書에도 西洋의 나라는 強力한 武力을 가졌다는 認識을 가졌었

고, 그 힘을 빌어 信仰의 自由를 갖겠다는 運動을 벌렸어요.

그 다음에 가장 有名한 事實이 1866년 大院君이 迫害를 일으키기 前에 러시아가 자주 頭滿江 流域에 나와서 괴롭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通商을 要求해왔어요. 그러면서 慶興地方에 자꾸 나타나 咸興까지 가서 都江司를 맞나겠다고 威脅하고 三個月 以內에 通商할 것을 要求한 일이 있어요. 이 때 所謂 洪鳳周·南鍾三 이런 天主敎徒들이 하나의 方案으로 大院君에게 建議를 내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西洋의 英國·佛蘭西가 大端히 強한 나라인데 이들과 軍事同盟을 맺으면 러시아의 南侵을 막을 수 있겠다. 여기에 大院君도 마음이 쏠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推進할 수가 있겠는가? 그 일을 推進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12名의 神父를 通해 可能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大院君이 퍽 환영해서 그럼 그 神父들을 곧 만나보게 하라고 要請하였는데 마침 그 때가 聖誕이라서 서울서 傳敎하던 Berneux 主敎 및 忠淸道 地方에 가 傳敎하던 副主敎 Daveluy 等이 信者들에게 年末 膳物을 주기 爲해 黃海道에 내려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大院君이 만나자는 臨迫한 時期에 만나 주질 못했읍니다. 여기서 大院君이 크게 마음을 돌려서, 또 北京 갔던 우리나라 使臣이 우리나라에 急書를 보내어 지금 北京에서는 天主敎徒를 전부 죽이고 있다. 外國人도 다 죽이고 있으니 此際에 우리나라도 天主敎徒를 죽이자 하여 1866年 가장 酷毒한 天主敎 迫害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迫害 일어나기 直前에 佛, 英과 同盟을 맺자는 이런 運動이 일어났으나 成功은 보지 못했읍니다. 이래서 結局 見聞 接觸에 依해서 西洋知識을 받고, 西洋의 風俗이 어떻다는 것도 大槪 짐작했던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다음 세째는 信仰生活을 通한 西洋認識, 이것은 주로 思想的 宗敎的인 문제입니다만 Matteo Ricci가 만든 天主實義라는 册이 上下 一卷二册으로 된 것인데, 內容은 天主敎의 敎理를 要約해서 中國漢文으로 飜譯한 것입니다. 八篇으로 되어 있는데 一篇에서 七篇까지는 敎理的인 面——世上에는 天主 오직 하나만 存在하고 사람의 靈魂이 죽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와 아울러 中國의 陰陽學說 또는 佛敎의 學說을 批判했던 것입니다. 單純히 天主敎의 敎理만을 紹介한 것이 아니고 中國에 當時 傳來되어 있던 佛敎 또는 道敎, 陰陽學說을 全部 批判하고 있읍니다. 特히 第二篇에 있어 天主의 存在를 論함에 있어 佛敎의 道理, 道敎의 道理가 어떻다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解說해 놓았읍니다. 이것은 中國에 傳敎하기 爲해서 이런 方法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第八篇에 가서는 西洋의 風習을 紹介하고 있읍니다. 西洋의 風俗으로는 神父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獨身을 지키고 敎皇이 계시다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 紹介하고 있읍니다.

이 天主實義가 우리나라에 正式으로 傳來된 年代는 仔細히 밝히지 못했읍니

다만 적어도 李脩光이 1610年에 北京에 갔을 때에 아마 얻어서 보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것이 그 當時 뜻있는 學者들에게 紹介되고, 그 中에 許筠같은 이는 이것을 率先해서 믿는 運動을 展開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李脩光의 8代後孫 李潤夏가 天主敎徒가 됩니다. 芝峰은 南人學者이지만 血統은 王族으로 李朝 太宗의 아들 慶寧君 裨의 八代孫입니다. 그 後孫 李潤夏가 丁茶山 一派와 더불어 敎會創設 運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이루갈다인데 全州 敎徒 柳恒儉의 아들 柳宗善에게로 시집을 갑니다. 이 때에도 여러가지 말이 많았읍니다만 적어도 王家의 血統이 全羅道에 있는 無名 柳氏에게로 어떻게 시집을 보내느냐 해서 家門內에 한 때 騷動이 일어난 일이 있읍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芝峰類說에 紹介된 天主實義, 또 實際 北京에서 들어오는 天主實義를 보고 信仰運動을 展開하면서 西洋의 宗敎를 받아 들이는 運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77年에 丁茶山 一派가 어느 절에 모여서 겨울에 敎理 討論會를 열었읍니다. 그 절의 所在가 最近에 밝혀져서 말씀 드리면 廣州 鶯子山이라고 하는 天眞庵에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절터만 남아 있지만 鶯子山 周圍에는 7·8개의 庵子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가 茶山의 故鄕 마제와도 가깝고 해서, 그 一帶에 살던 南人들이 그 山中에 모여서 거기서 天主實義나 其他 敎理 册에 나타난 것을 實踐하는 運動을 전개했읍니다. 實際 아침 저녁으로 朝課 晩課를 외고 戒를 지키고 하여 一種의 信仰運動을 展開한 일이 있는데, 그 때는 막연히 主日制度가 있다는 것을 알고 7日에 한 번씩 主日 制度를 實踐해 보려 했읍니다. 7日, 14日, 21日, 28日을 主日로 定하여 모인 一種의 過渡期的 敎會創設 運動을 展開했읍니다.

그러다가 좀 더 本格的인 것을 알아 보자고 하여 北京에 使臣을 보내어 李承薰이가 燕行使로 가는 아버지를 따라 北京에 들어 갔읍니다. 그래서 北京 天主堂에 가서 그라망 神父에게 靈洗를 받고, 李承薰과 그라망 神父가 筆談으로 이야기 하여 보니까 李承薰의 敎理에 對한 知識이 놀랍게도 完備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1784年 봄에 李承薰이가 돌아와서 丁茶山 以下 다른 信者들에게 代洗를 주고, 95年 봄에 明洞 金範禹집에다 敎會를 創設한 것이예요. 처음에는 李承薰 이런 이들을 뽑아 神父라고 부르고 行事를 했읍니다만, 그것이 얼마 안 가서 발각되어 解散 命令을 官院에서 내리고 迫害가 始作된 것이예요. 李承薰은 迫害 途中에 여러번 變心을 합니다만 결국 자기들의 假敎職 制度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北京에 本格的으로 使臣 密使를 보내어 所謂 正式 神父를 要求한 것이예요. 그래 1795年 正月에 周文謨 神父가 들어 옵니다. 그러다가 1795年 迫害가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도 北京敎會를 거쳐 멀리 로마에 까지 使紙를 보냈어요. 丁夏祥등이 적은 使紙가 1827年에 Rome에 到着한 것이예요. 東方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敎會를 세우고 神父를 派遣한다는 事

實이 Rome에 알려져 1831年 朝鮮教區가 成立되는 것이예요.

結局 教區가 獨立되자 西洋 神父들이 많이 들어오고 天主教 信仰의 自由를 그대로 지켜간 것입니다. 그리고 當時의 社會를 改革하는 일을 한 것이예요. 天主教 信者들은 서로 教友라고 불러서 그 때 當時 嚴格한 社會에서 平等主義를 導入하여 階級打破運動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天主教는 兩班 階級에서 믿기 시작하여 王宮으로 들어 갑니다. 哲宗의 할아버지 되는 雲峴君의 부인 宋氏가 믿고, 宮女로 들어가고 거기서 下層階級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一般 平民, 奴隷, 特히 天主教가 많이 퍼진 것이 獨身을 지키는 우리나라 寡婦들인데 그런 女流層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女子들이 밖에도 나갈 수 있고 밤이면 神父를 찾아가고 하였는데 이러는 사이에 西洋에서 이루어진 平等思想이 全部 옮겨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西洋 神父를 通하여 西洋의 學術的인 面이 輸入된 것입니다. 가령 丁茶山의 馬科會通과 같은 册, 種痘法인데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은 茶山의 外家에 漢醫師들이 많아 漢醫에도 造詣가 깊었는데 거기다가 西洋醫術을 받아들여 소위 牛痘法을 만든 것입니다. 茶山이 나중에 罪가 풀린 重要한 理由도 醫術로 말미암아 1827年에 七種 十八册의 두꺼운 册이 木板으로 새겨 나왔읍니다만 이런 功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西洋에도 西洋대로의 文字가 있다는 것을 앎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로서 한글을 가지고 教理를 出版하는 運動도 일어났어요. 이밖에도 論議될 것이 있겠읍니다만 時間上 이만 끝마치겠읍니다.

東學에서 본 西學

金 龍 德

저로서는 東學에서 본 西學이라는 題目으로 이야기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天主教를 正祖朝에는 佛教의 한 派라는 認識을 갖고 있었읍니다. 正祖 12年에 右議政 蔡濟恭이가 王에게 天主教라는 것은 佛教의 한 派라는 뜻의 말을 하고 있읍니다. 이 蔡濟恭의 西學認識에 크게 作用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朴齊家의 意見인데 그는 "天主教란 佛教와 같은 것이다. 天堂地獄說 等이 佛教와 꼭 같은데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佛教에는 당혹설밖에 없지만 西學에는 후생지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며, 여기서의 후생지구란 科學技術을 意味합니다. 그러니까 正祖代에 있어서 科學이란 것은 밥과 技術이라는 것과 結付된 이메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1860年 東學教祖 崔濟愚가 創教하게 될 때 쯤 해서는 상당히 애기가 험악해져서 西學은 洋仇의 前驅다. 即 西洋사람이 쳐들어 오기 前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天主